

## “에이즈환자 요양병원 입원 개정 이대로는 안된다”



염안섭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에이즈TF팀장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

**필자**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말기 암 환우분들을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다. 그러다가 대학병원은 일주일 이상 입원하는 게 어려워져 말기암 환우를 좀 더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장기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가정의학의 대부 윤방부 박사님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전제 병원장이셨던 김성규 원장님 등을 모시고 말기 암 환우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필자의

인생을 바꾼 전화 한 통을 받게 된다. 필자의 지인이셨는데, 수술 후 입원할 요양병원이 없어서 전화를 하신 것이었다.

이유는 그 분이 에이즈 환자여서 요양병원들이 입원을 꺼려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필자도 전혀 그 분이 에이즈환자인 줄을 몰랐다.

왜냐하면 에이즈라는 것을 밝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 분 스스로 비밀로 하고 사셨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는 중에 ‘아, 내가 말기 암 환우들을 모시는 첫 번째 사망 이후에 에이즈 환우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라는 두 번째 사망을 신께서 주시는구나’ 싶어서 그 분을 모시게 됐다. 그분의 집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를 낼 수가 없었고 필자가 다 메꾸어 가며 입원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서 정말 갈 곳이 없는 에이즈 환우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속 오게 됐는데 나중에는 6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다보니 대한민국 1,300개 요양병원 중에 에이즈 환우를 돌보는 유일한 병원이 되었다. 필자가 잘나서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에이즈 환우를 돌보는 요양병원을 한 것이 아니고,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하겠다고 손을 드니 자동으로 유일한 병원이 된 것이었다.

그런데 에이즈환우들을 돌보다 보니 특이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국내에서 치료비, 입원비 전액에 간병비 까지 모두 지원받는 환자는 에이즈 환자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2015년 12월 23일에 ‘(보건복지부령 제375호)의료법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이 발표되었다.

전국의 1300개가 넘는 민간요양병원에 에이즈환자가 입원을 원할 때 만일 병원 사정상 입원을 못시키게 되면 진료거부로 처벌받게 되는 시행규칙이다. 이 일로 요양병원들이 발칵 뒤집혔다. 만일 에이즈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아직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은 현실에서 에이즈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에이즈환자의 경우 악성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아, 옆에 계신 면역력이 약한 노인환자에게 감염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국에 국공립요양병원이 80곳이 넘게 있고 병상수만 1만 5천병상이 넘는데,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에이즈환우의 수는 약 1백명가량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공립요양병원 중 일부에서 에이즈장기요양을 시행하면 되는데, 굳이 법까지 바꾸어 가면서 에이즈환우들이 원하는 민간요양병원에 무조건 입원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동성애에이즈단체의 집요한 압력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로, 결국 남성간의 항문성관계로 에이즈에 이환되면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죽을 때까지 이분들의 노후를 보장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에이즈환우가 요양병원 입원시 입원비 전액과 간병비(40만 원)까지 전부 국가가 죽을 때까지 부담하여, 남성간의 항문성관계로 에이즈에 이환되면 노후 걱정없이 평생 살게 되었는데, 국공립요양병원을 에이즈지정병원으로 정해 그곳에서만 입원하게 하면 환자입장에서는 지정병원 중에서만 골라 가야하니 선택권이 제한되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특히 국립A병원에 입원한 에이즈 환우의 경우 간병비로 1인당 180만 원의 현찰이 국가로부터 지급되고 있으니 귀족입원이라는 논란이 나올만 하다. 그렇다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에이즈환자는 어떤

모습일까?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에이즈 장기요양시설에 입원하는 남성 동성애자의 평균연령은 41세에 불과하며 44%가 정신질환, 48%가 심각한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57%는 마약중독자였고 이들은 입소 전 11개의 약물을 복용할 정도로 많은 합병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71%가 종합병원에 있다가 전원되었고 39%는 집에서 왔는데, 집에서 온 31%의 에이즈환자는 진단이 안 된 숨겨진 감염질환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요양병실에서 다른 환자에게 감염될 우려가 있다.

대구의 한 국립요양병원의 통계를 보면 요양병실에 입원한 노인환자의 평균나이는 81세였다. 이런 면을 보더라도 도무지 에이즈환자가 노인환자와 같은 병실에서 산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런 문제로 앞으로 겪을 사회적 혼란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전국에 산재한 국공립요양병원 중 23개소 정도를 지정하여 에이즈환자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 타당할 듯 보인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동성애에이즈단체의 강한 압박으로 개정령을 그냥 통과시켜 버린 것이 큰 문제다. 에이즈는 명확히 성병이며, 특히 남성간의 항문성관계를 통해 주로 전파되는 남성동성애자들의 대표적 질병이 맞다.

가천대 길병원 박재형 교수는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남성 이성애자에 비해 약 750배 높음을 알 수 있다”며 에이즈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남성간의 성관계를 지적했다. 미국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와 남성간의 항문성관계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 홈페이지에 명확히 게시하여 미국 국민을 계몽하고 있는데, 2013년 13-19세 신규에이즈감염자의 92.8%가 남성간의 성접촉으로 인한 것이고 1.4%는 남성간의 성관계와 마약주사를 같이 한 경우였다. 20-24세 에이즈 신규감염자의

91.7%도 남성간의 성접촉때문이었으며 3.0%는 남성간 성접촉을 하면서 마약주사를 같이 한 경우였다. 두 개의 수치를 더하면 에이즈감염자 중 94%가 남성간 성행위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는 2007-2010년 에이즈 감염자 중 대다수가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대부분의 게이와 양성애자 남자들은 항문성교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된다.

항문성교는 에이즈에 걸리거나 전염시키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이즈감염에 있어서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은 1995년, 수혈로 인한 감염은 2006년 이후 보고사례가 전혀 없다. 2013년 1,114명의 에이즈 신규발생이 신고되었는데, 남자가 1,016명, 여자가 98명으로 10.4:1로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았다. 그리고 감염경로에 대해 확인된 것은 100% 성접촉이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에이즈는 부적절한 방식의 성관계로 옮는 성병이다.

그 중에서도 에이즈감염의 진원지는 남성간의 항문성관계로 성적패락을 얻는 남성동성애자이다.(단일 남성과 여성간의 정상적인 성관계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예가 많을수록 에이즈 남녀성비는 1:1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의료법을 바꿔서 까지 동성애로 에이즈에 이환되면 보훈대상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 주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고 본인이 선택한 것이다. 2012년 Drabant 등의 연구는 가장 첨단적 기술인 Genome-Wide Association Study(GWAS)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유전자 하나 하나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약 23,000개 인간 유전자 중에서 동성애 관련 유전자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정신분열병에 대한 GWAS는 거의 100개가 넘는 관련 유전자를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연구 속에서 동성애 유전자는 전

혀 발견되지 않았다.

필자는 얼마 전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 강의하였고 유튜브에 동영상도 올라와 있는데,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자 곧 성소수자단체에게서 저주성의 테러 문자가 날라왔는데, 놀랍게도 필자의 칠순되는 부모님의 핸드폰으로 두 차례 보냈다. 소위 인권이라는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노부모에게 “네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저주한다” 라는 식의 문자를 보내는가? 이미 성소수자단체는 필자의 핸드폰번호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필자의 노부모의 번호를 알아내어 고의적으로 필자가 아닌 필자의 부모님께 문자테러를 한 것이었다. 그 뿐 아니다. 이른바 성소수자인권단체의 공지사항을 보면 혐오세력(동성애의 해악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주요인물 뺏조사라고 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뺏조사하여 발표하고 악점을 잡을 궁리를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을 때 우리나라의 성소수자단체, 그리고 에이즈단체 모두가 규탄 성명을 내면서 통합진보당의 3만명 당원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게 무얼 말해줄까는 각자가 생각해볼 일인데, 저들은 박근혜 정권이 인권 탄압, 독재 세력이라고 공격도 했다. 사실 국내에서 매년 열리는 공산주의 대회와 주요 주제가 동성애이고, 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이 ‘노동자 연대’에 연재한 글에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반박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기회에 밝히자면, 성소수자인권단체 현 대표인 꺾00씨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민주노동당)의 대의원이고, 성소수자인권단체 전 대표 장00씨는 통합진보당 위원장이었다.

동성애와 에이즈 문제, 까면 갈수록 복잡하고, 실로 걱정스러운 정치사회적 문제인데, 요양병원까지 그 여진에 흔들리고 있다.

/MP저널